

[사회]



보성실업고 자동차과 3학년 학생들이 최근 교내 화단에서 담임교사 윤정현(뒷줄 맨 왼쪽)씨와 졸업 앨범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시골 학생들 자격증 신기록

보성실고 자동차학과 3학년 1인당 평균 11.5개 전국 최다

박지현 양 34개 '인재상'

전교생이 174명에 불과한 시골의 작은 고등학교에서 '전국 최다 자격증 취득' 신기록을 수립해 화제다.

9일 보성실업고등학교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오는 12일 보성실고 자동차과를 졸업하는 40명의 학생이 고교 3년 동안 총 460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는 1명당 평균 11.5개로, 전국 고교 중 학급별 최다 취득률이다.

특히 박지현(19)양은 무려 34개의 자격증을 따내 전국 고교생 최다 자격증 취득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2008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현양은 자동차 검사와 정비기능사뿐 아니라 볼도저·롤러·천장크레인·기중기 운전기능사 등 건설기계분야의 거의 모든 자격증을 따냈다. 지현양은 또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한자, 무역영어, 비서 자격증 등도 갖췄다.

보성실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신기록이 더욱 기록한 것은 대부분

가정 환경이 어려운 탓에 편의점과 식당, 보성 녹차밭 등에서 주·야간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격증 시험비용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자격증 종목에 따라 광주·목포·부산 등으로 시험을 보려 다녀야 하는데다가 중장비를 임대해 실습해야 하는 등 시험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고 3 때만 기계·전기 분야 등에서 13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송제수(19)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통해 모돈으로 시험 비용을 충당했다"면서 "힘들고 고통받을 때마다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성실고가 자격증 취득 명문고로 우뚝 선 비결의 중심에는 윤정현 자동차과 담임 교사의 열정적이고 독특한 수업 방식이 자리잡고 있다.

윤 교사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1학년 때부터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도록 설득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중학교 시절 하위권의 성적을 맴돌았던 탓에 '난 안 된다'는 패배의식에 젖

어 책과는 거리를 뒀다고 한다. 윤 교사는 고민 끝에 대기업체 사원 등이 된 옛 제자들을 불러 모아 재학 시절에 딴 자격증이 사회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도록 했고, 이에 학생들의 태도도 점점 긍정적으로 변해갔다.

학생들의 변화를 간파한 윤 교사는 곧바로 그룹 활동을 접목한 '페리미드식' 수업 방식을 도입, 자격증 따기를 독려했다.

윤 교사의 페리미드식 수업은 자격증을 먼저 취득한 학생들이 1~2명을 끌어들여 공부를 함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이들이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면 다른 학생을 설득해 '자격증 바이러스'를 확산시켰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윤 교사는 "힘들었을 텐데도 잘 따라 준 제자들이 대견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실고는 자동차과와 차산업경영과 등 2개 과가 개설돼 있으며, 1951년 보성농고로 개교했고 지난 93년 자동차과를 신설하면서 보성실고로 개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U대회 봄 조성 시동

광주시·5개 자치구 '범시민지원단' 발대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범시민지원단' 발대식을 잇따라 갖고 유치 봄 조성을 나선다.

2015 광주하계U대회 유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vension홀에서 범시민지원단 발대식이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박관태 광주시장과 정의화 유치위원장장을 비롯 범시민지원단 리더 1천500여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결의한다.

또한 13일에 광주 서구가 지원단 발대식을 갖는 것을 비롯 동구(23일), 남구(24일), 광산(25일), 북구(26일)도 잇따라 U대회 유치 열기 조

성에 나선다.

범시민지원단에는 각 구에서 15만 명의 시민이 참가하고 있으며 개최지가 결정되는 오는 5월 말까지 ▲U대회 유치를 위한 국내 홍보 및 봄 조성 ▲실시간 환영행사 참여 ▲기조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시민실천운동을 벌이게 된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지원단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범시민지원추진협의회'가 구성됐다.

한편 광주시는 다음달 14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대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FISU는 4월 현지실사를 거쳐 5월 23일 베이에 브뤼셀에서 최종 개최지를 결정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대보름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 참가자 4명 추락 숨져

경남 창녕읍 옥천리

정월대보름인 9일 오후 6시 20분께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화왕산 정상에서 억새태우기 행사에 참가했던 등산객 4명이 추락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자 등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이날 사고는 억새에 불을 붙이는 순간 억풀이 불어 불길이 방화선을 넘어와 구경하던 등산객들이 피하려는 과정에서 정상 아래로 추락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자 등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연탄가스 중독 노부부

남편 숨지고 부인 중태

9일 오후 5시께 광주시 동구 계립동 A(82)씨의 집 안방에서 A씨와 부인 B(75)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것을 N요양원 사무장 조모(여·54)씨가 발견,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A씨 부부는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는 숨졌다.

고, 부인 B씨는 중태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집 안방에는 높이 80cm의 연탄 화덕이 놓여 있었고, 불을 지핀 흔적이 남아있었으며 외부로 연탄 가스를 배출하는 관도 없는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중풍으로 N요양원에서 요양하던 중 사고 전날 집에 돌아왔으며, B씨도 폐암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호기자 kh@

오늘 날씨

해물 07시 24분 해침 18시 10분

달금 19시 02분 달침 07시 34분

아침 안개 조심

대체로 맑다가 오후들어 구름이 많이 기겠다.

광주	맑은 뒤 흐림	0/11°C
목포	맑은 뒤 조금	1/10°C
여수	구름 조금	3/11°C
완도	구름 조금	1/11°C
구례	맑은 뒤 흐림	-3/12°C
해남	구름 조금	-2/11°C
장흥	구름 조금	-2/11°C
고성	구름 조금	-2/11°C
순천	구름 조금	1/12°C
영광	맑은 뒤 흐림	-1/10°C
전도	구름 조금	-1/11°C
전주	맑은 뒤 흐림	-1/10°C
남원	맑은 뒤 흐림	-3/11°C
흑산도	맑은 뒤 흐림	4/9°C

비단	평화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일반다	남서~서	0.5~1.5m	02:20
면비단	면비단	1.0~2.0m	15:02	20:16
남해 서부	일반다	서~서	1.0~1.5m	09:47
면비단	면비단	1.0~2.0m	21:58	03:20
여수				15:4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기상>

날짜 날씨 최저/최고

날짜 날씨 최저/최고